

■ 2024년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유형②)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유형②)
- 회의일시 : 2024년 12월 6일(수) 10:30~16: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우혜수, 유연경, 이명원, 정유란, 최여경, 한지영

국제예술네트워크 지원(유형②) 사업은 예술가들과 예술단체가 '기존에 구축한 다양한 국제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해외 파트너 간의 국내외 공동창작 및 발표, 세계적인 비엔날레/트리엔날레/ 축제의 공식초청 및 발표 등을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의 세계적인 수준의 위상 제고와 예술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유형①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는 차별적인 것으로, 이후의 '활용'에 중점 두고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제예술네트워크 지원(유형②) 사업의 심의기준은 1)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정도(10%), 2) 신청자 단체의 역량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30%), 3)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실현가능성(30%), 4) 국제적 기대효과(30%)를 중심으로, 각 심의위원들이 지원신청서 상의 사업계획과 예산 등에 대한 전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심의위원들의 전수검토 종합 결과를 기초로, 본 심의에서는 국제예술네트워크 지원(유형②) 사업의 심의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유형①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다른 기관과의 지원 중복 사업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아쉬운 지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각 분야 국제네트워크 활용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예술적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고려하였습니다.

심의과정을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개진한 견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기존에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예술가/예술가단체들이, 특히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 수준 높고 확장성 있는 프로젝트를 매우 역동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신청자나 신청단체 역량의 축적된 질적 탁월성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지원신청서 상의 사업목적 및 의도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는가의 여부를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심의 과정 속에서 국제예술네트워크의 확산 및 실천,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사업계획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셋째, 국제네트워크의 활용과 관련된 초청장, 계약서 등의 문서가 정확하게 구비·작성되었는지, 한국과 해외의 협업단체와 개인들의 축적된 활동, 국내와 해외 파트너 간 예산의 책임 있는 분배 및 협업관계가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가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넷째, 지원신청 기관의 네트워크 활용 역량과 초청 조건, 교류 사업의 우수성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 예술적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제네트워크지원(유형②) 사업에 신청한 192건의 지원사업 가운데, 24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심의에 선정된 지원신청사업들은 문학, 시각 예술,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축 이후 그것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형태의 국제네트워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진지하면서도 창조적인 주제의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들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국제 네트워크의 확산 및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주목하였으며, 지원선정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예술 진흥의 적정한 균형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원예산 결정에 있어서는 각 지원 신청자/신청단체가 소요액으로 제출한 일반수용비나 국외여비 등 항목에서의 현실성 있는 소요예산 기준을 고려하는 한편, 예술가/예술가 단체 자체 예산의 적절성, 해외 파트너 단체와의 합리적 예산배분 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한 조건 위에서 최종 지원 예산을 결정하였습니다.

국제예술네트워크(유형②) 지원사업은 기존에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유형①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으며, 초청장, 계약서, 국내와 해외단체 간의 협약사항(초청대상, 초청자, 초청조건(기간, 비용 명시)) 등에 관한 문서 등은 꼼꼼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계획에 있어서도 항목별 소요예산이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기초로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동일·유사 내용 사업의 중복 선정이 제한된다는 점도 환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령 예술경영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교류재단, 지역문화재단 사업 등에 기 선정된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자/지원단체가 지원신청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의 국제예술네트워크(유형②) 지원사업 심의를 진행하면서 심의위원들은 매우 수준 높은 국제예술 네트워크 프로젝트들이 경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산상의 한계로 더욱 많은 신청사업을 선정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사업에 신청한 모든 예술가 및 단체의 건승을 바랍니다.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유형②) 심의위원회 일동